

근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한국기사에서 김대통령의 개혁을 '유교적 개혁'이라고 하며 불경기나 실명제에 따른 기득권층의 비협조로 발미암은 장애와 혼미에도 불구하고 그 의의를 다음과 같이 부각시켰다(S&I Q11), 즉 한국인은 김대통령의 개혁조치가 도덕적 재성을 가져오고, 이기심의 종말을 가져왔고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탈세의 냉소주의풍조에 활장을 낸 점이 획기적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나는 '유교적 개혁'이라고 하는 점과 김대통령의 집권기반에 대한 문제를 우선 지적함으로써 개혁의 제도진입이라고 하는 문제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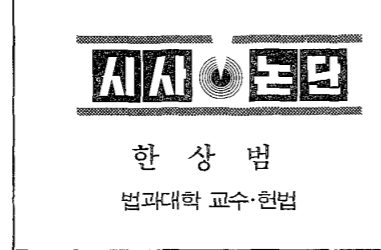
지금 32년만에 '문명정부'의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도 봉건적·가부장적·유교적 권위주의 풍토는 그대로 있으며 오히려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의 발현에 그러한 토착적 풍토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한편 김대통령의 집권기반은 3당 합당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기득권 수구세력이 있다. 따라서 김대통령의 개혁은 기득권 세력층에 부패세력에 대한 내부적 대결을 통하지 않고는 이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처음부터 어려운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기득권 부패세력은 여당과 국회 및 지방기관에 포진하고 제도와 확고한 유착을 하고 있으며 이들 자신이 경제적·지역적·인명상의 실세를 이루고 있다. 그들은 공직자 재산공개제에 개혁이 체질적으로 반발해서 '사보타지'를 해왔고 '금융실명제'로 자기의 몰래 계좌를 폭로되고 경제기반에 대한 임대차명타를 당하게 되자 '10월 대선설'로 부터 경제위기를 정치보복적 개혁악용설, 중소기업일체도산설... 등에 이르기까지 온갖 모략과 방해공작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개혁은 이룩해 내야 한다. 그것은 김대통령의 의지일 뿐만 아니라 32년간의 군사정치에 살인 부패세력을 배제하고 민주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하는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이다. 지금 개혁에 대한 기존정당 태두리간의 여야가 없고 오히려 민주세력의 편이가, 아니면 부패세력 주세력 편인가 하는 쪽으로 갈라지게 된

다. 물론 그 수단과 방법에서 각기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부패 기득권 세력이 자기의 지위와 재산 등을 고수하려고 하는 저에서 개혁의 수단·절차에 대해 공개명사를 요구하고 이른바 제도화를 요구하면서 '시간 벌기'를 피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개혁은 공직자 재산공개와 금융실명제와 같은 일대 정치조치에 따라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지만, 또한 그것은 노태우정권 출범때부터 숙제가 되어 온 악법폐기과와 민주화 조치가 따라야 한다. 이 점은



한 상 범
법과대학 교수·한법

비록해 과거 청산인 '1212 항쟁내란사건'의 감사등, 마무리 지을 일이 태산같이 쌓여있다. 한편에 일이 쏟아지게 된 사정인 하지만, 일을 한꺼번에 벌여놓고 가장 핵심적인 초점을 흐려버리며 시간끌기로 김법기작전을 하려는 기득권 보수세력의 은근한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 국회가 개혁을 감당해 내어서 그 구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불안감을 주고 있다. 그것은 집권당인 민주당 자체를 개혁세력으로 평가하길 주저하는 분위기가 사정인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번 재산공개를 통해서 나타난 몇가지

와 직무관련기업주식보유 등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하는 점이다. 물론 깨끗한 공직자가 많고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본다. 그래도 불안하고 믿을 수 없다. 그 한 가지 이유를 들면 민주당이 부정하게 치부한 한 의원의 정계를 9월16일자로 마무리 지었는데 이전에 공직사퇴를 권유한 것 이외에 출당 2명, 당권정치 1명, 총재명의 경고 약간명 등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태산이 울리고 생쥐가 한마리"라는 풀인가, 무엇인가, 이것이 개혁이고 인적 청산인가.

그래도 국민대중은 개혁을 국회를 통해 본래에도 올라갈 바란다. 4월26만 투표중에서 1프로도 안되는 기득권 부패세력이 비록 정계의 실세이고 재산의 독점자라고 해도 우리는 개혁을 통해서 그러한 부조리와 모순이 바로 잡히길 바란다. 기득권세력도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개혁을 감수하고 협조하고 정직하게 처신해야 한다. 몸치고 때고 가지 따먹는 국민의 재산과 국가의 공금에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고 몰래 청산작업이 국회라고 하는 민의대변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길 바란다. 부패세력은 김대통령의 개혁을 방해하고 김대통령의 리더십의 권위주의성이나 독재를 비난하고 있는데, 물론 잘못은 옳고 그르다. 그러나 여기에서 스스로가 개혁의 의식을 가지고 부정한 재산을 지키려고 하

기전에 그러한 과거의 독재와 반민주의 집권지배를 약용하고 남용해 치부한 자신들이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건국직후 진일과를 숙청한다고 우란한 재판관을 받아다가 일부 기본품으로 그친채, 천일파의 숙청에 실패한 역사의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도 국회의 활동에 기대하고 국민이 국회의 역할에 대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나아가서 개혁을 국민의 개혁으로 이끌어가며 기득권 부패세력의 반동예를 제거는 일대사회운동을 통한 정치적 운동으로까지 나아가야만 한다. 국회가 해주길 바라고만 있을 수 있는 사정은 아니다. 그래서 될 일은 이루고도 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운 교훈을 안다면 다시금 어리석은 일을 되풀이 할 수 없다.

물적청산, 국회통해 이뤄져야

Y·S의 개혁과 정기국회

김대통령의 대선공약과도 관련, 당정의 숙제가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치관계법으로서 선거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 등이 개정 대상이 되고 있고 노동관계법과 사립학교법을 지나칠 수 없고, 인권과 정치의 민주화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가보안법과 안기법, 통신비밀법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선거관계법과 정치자금법 및 지방자치법 등이 간신히 마무리되면 다행이 아닐까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 밖에도 일반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한편, '윤곡사입'과 '명파의 뎀사입'의 감사

현상을 통해 볼지라도 국회는 개혁의 주역으로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와 깨끗이 못한 재산이라고 하는 짐을 짊어지고 있다. 이번 중앙공직자로서 재산공개자는 1천1백67명이고 이들의 평균재산소유액은 14억4천만원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평균재산은 26억1천만원이며 의원으로 예금이란 항목도 없다고 신고한 사람도 52명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재산공개제를 통해 분별할 일게 된 것은 공직자들의 재산형성과정의 대개의 수단이 땅투기, 탈세, 농지의 위장전입, 입, 뇌물수수, 국가정보유출을 통한 투자

카오스 (CHAOS: 혼돈과학)의 태동

혼돈 규칙성 규명한 新이론

1970년대를 전후해 새로운 학문의 영역으로 떠오른 혼돈과학(chaos)은 지난 20여년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이공학 분야는 물론이고 인문사회과학의 계 분야에까지 지면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은 20세기에 접어들어 상대론과 양자역학의 대두로 큰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첨단과학의 대를 구가하고 있다. 혼돈과학의 출현으로 우리는 또 한번의 과학혁명,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큰 사고의 전환을 가져올 고소통시대가 열려지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수천년을 지나온 동안 인간은 기록되고, 분석되며, 예측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많은 규칙성이 자연현상에 내재되어 있음을 깨닫고 있다.

결정론적 과학

자연현상을 파악하는 인간의 사고는 우물안개 곤충이 있는 것은 아닐까?

중세의 절대적인 가치관이 뒤로 물러서고, 합리적 사고방식이 활짝 꽃피던 17세기, 자연과학은 뉴턴과 동시대 과학자들이 물체의 운동을 미분방정식을 도입하여 정량적으

로 표현하게 되면서, 강력한 과학의 언어로 등장한 수학의 힘을 입어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의 과학문명을 낳으며 발전하고 뉴턴역학의 대두로 과학자들은 모든 운동을 미분방정식으로 표현하여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 운동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물체가 주어진 운동방식에 근거한 완벽 한 법칙과 질서에 따라 운동하여 어느 한 순간의 상태를 알면 과거와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결정론적 과학은 뉴턴역학의 산물이다. 자연현상과 과학의 진수이다. 실제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운동의 방정식은 대다수가 비선형성이며, 선형성으로 표현되는 운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비선형 미분방정식은 아주 간단한 형태일지라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해를 구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근사법에 의하여 비선형 방정식을 선형방정식으로 변형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난 300여년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를 복잡한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어 해결하려는 환원주의(reductionism)가 자연과학계를 지배하여 왔으며, 선형성의 산물인 결정론(determinism)적 사고체계는 우연성의 과학(혼돈과학)이 들어설

들을 허용하지 않았다. 과학자들은 알게 모르게 비선형방정식으로 표현되는 자연현상을 근사화한 선형 방정식의 해법으로 이해하려는 결정론적 사고의 우물안개에서 학문적 노력을 계속해 왔다. 선형방정식에 익숙한 선생들은 제자들을 선형 방정식에 익숙한 과학자로 길러오 는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선형방정식의 해법에 의한 비선형방정식의 해석은 근본적으로 비선형방정식이 내포하고 있는 비선형성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고 있음이 학문의 역사에서 간간히 지적되어 왔지만, 선형성의 견고한 우물안개에 부딪혀 질적변화를 겪었던 비선형의 숙성은 급격히 후 반 뉴턴 컴퓨터의 발달에 힘입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1970년대부터 각자 다른 분야의 몇몇 과학자들이 의하여 제기되어 많은 과학자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던 비선형동역학(bifurcation dynamics), 즉 혼돈과학은 1980년대에 접어들어 크게 거변이 확대되어 이제는 전 학문분야에 걸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혼돈과학

혼돈(chaos)이란 단어는 1975년 매릴랜드대학교 수학과 교수인 요크(James Yorke)가 처음으로 과학(수학)용어로 사용하면서 종래의 사전적 의미에 새로운 과학적 개념을 불어넣어 과학적용어로 재탄생

하게 되었다. 혼돈, 질서가 있는 우주 이전에 존재했다고 생각되는 질서가 없고 행태가 없는 물질.

2. 완전한 무질서, 뒤섞여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

3. (수학) 결정론적인 비선형계에 서 나타나는 불규칙하고 예측불가능한 현상.

위의 3번째 서술이 과학적 혼돈의 개념을 설명하는 뜻으로 사전에 첨언되어야 할 부분이다.

혼돈운동은 결정론적운동과 상반된 의미를 갖는다. 혼돈운동은 완전한 질서를 따르는 법칙이 없는 운동이다. 다시말해 현재상태에 기초하여 과거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불예측성(unpredictability)을 내포하고 있는 운동현상이다. 비선형계가 내포하고 있는 비선형성에 기인하여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계의 정보가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작은 오차가 지수함수적으로 증폭되어 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쓸모가 없는, 의미가 없는 정보가 된다. 중국 양자장가에서 노니는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여 수천년만 떨어진 것은 뉴욕시에 폭풍우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나비효과(butterfly effect)"를 1962년 MIT의 기상학과 교수 로렌츠가 조보적인 컴퓨터를 사용하여 공기의 대류운동을 나타내는 간단한 비선형식을 계산하던 중 우연히 발견함에 따라, 황량한 사막과 같은 도양에

조그만 혼돈과학의 거저가 파종되었다. 이후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이 간단한 비선형계에서 종래의 사고방식으로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혼돈현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서 계를 나타내는 비선형 운동방정식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혼돈현상을 결정론적 혼돈(deterministic chaos)이라 부르게 되었으며, 수많은 많은 알맹이로 구성되는 기체나 액체의 입자들이 무작위성에 기인하여 보이는 운동과 같은 혼돈 현상을 복잡계의 과학(complexity of complexity)이라 불러 혼돈과학의 두 가지 주된 관심분야를 이룬다. 혼돈과학은 혼돈현상에 내재된 규칙성을 파악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순차하여 자연현상을 보다 적절히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다.

혼돈과학은 운동방정식이 내포하는 비선형성에 기인한 혼돈현상을 규명함으로써 종래의 선형방정식으로 기술된 선형과학이 응용된 모든 학문분야에 새로운 지평선을 열게 될 것이다. 지난 30여년간 꾸준히 발전되어 왔지만 아직 태동단계로 폭넓은 기초적 연구가 광범위하게 요구된다. 다음세기에는 혼돈과학에서 앞서는 국가가 과학기술 선진국이 되리라는 예측을 많은 석학들이 하고 있다.

박 배 식

(수원대 교수·물리학)

사설

'교육' 위협하는 고속전철

고속전철의 경주캠퍼스 통과가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9월초 고속철도 공단으로 부터 접수된 공문에 의하면, 당초 학교 부지 동측을 고가교량으로 관통하도록 계획된 노선 계획이 소음, 진동, 전자파 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대동과 구간을 지하 터널로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노선은 동대의 핵심 연구, 교육시설인 체육관(50m), 한방병원(80m), 자연과학관(80m), 의대부속병원(130m)과 근접 통과하고 있어 학교측에서 당초 부터 우려한 피해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현 계획 노선의 피해 대책 방안으로 노선의 지하화 문제가 거론 되었을 때, 학교측으로는 지하화 반대 하여도 소음의 감소는 가능하나 진동과 전자파의 피해는 분명히 남을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 공단측은 관련 연구기관에 용역의뢰한 '고속철도의 열차 주행으로 인한 동국대 구내 건물들의 진동 영향 검토' 보고서 등을 통하여 학교측에 피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공단측은 지하 통과시 학교 시설에 미치는 진동의 예측치는 최대 44dB(V)에서 최고 54dB(V)정도로서 환경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예측치는 단순히 문헌을 통한 추정치로서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간과 할 수 없는 것이다. 첫째, 이 보고서에서는 노선에서 불과 80m 거리에 위치한 자연과학관을 분석 대상으로 제외하여 현황 조사가 충분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학교 시설물에 피해 없음을 규정한 환경 기준치는 단순히 병원과 주거지역으로만 구분하였을 뿐, 실험기재 및 의료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연구, 의료시설에 대한 것대로서는 미흡하다 하겠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추정된 진동레벨은 일본 신간선에서 현장 실측한 진동레벨 보다 10dB(V)정도 낮게 나타나, 계산식과 계수 적용에 있어 신뢰도가 떨어진다 하겠다. 이처럼 부실하고 실체감이 적은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당초 부터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던 노선 계획을 수정 없이 단순히 지하화~10m 깊이로 지하화 하여 통과 하겠다는 데 대하여 동국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 전통국민과 불자들은 상보의 정제로 이룩한 학원의 수호를 위하여 전심전력하여 왔으며, 최근까지도 수차례에 걸쳐 노선 계획의 변경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공단측은 우리의 이와같은 열연은 도외시하고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하여 기존의 방식대로 관철 할 태세인 것이다. 우리는 학교 행정 당국의 대응 방법을 예의주시하면서 동국대의 향후 대책방안을 모색하고 고쳐 한다. 공단측이 제시한 환경 영향 검토 보고서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뢰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 따라서 본 대학로서는 관련 교수로 구성된 평가팀을 구성하여 공단측 보고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실현을 통한 현장 검증과 사실 확인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대형히 이직업은 현재 상당 부분 진척되었고 사실 확인중이라 한다. 이제는 대학입학제 보다 논리적이고 사실 규명에 입각한 대응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확인 작업 결과 본 대학에 미치는 피해가 과소평가된 전통국민과 불교인의 힘을 모아 학원 수호에 조직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 대학의 각주체가 각자의 주창대로 각자각색의 목소리를 낸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학교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 당국의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응에 힘입어 모아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가대사라는 미명하에 강요된 피해를 아무런 대책 없이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없는 것이다.

東國漫評

김 상 범



'94年度 大卒新入社員募集

맡은자리의 주인이 될
사람을 찾습니다

1. 모집부문, 인원 및 응시자격

직종	모집부	인원	응시자격
관리	경영학·경제학·회계학·무역학·법학·영어영문학·중어중문학·노어노문학	200명	1. 196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2. 4년제 정규대학 해당학과 전공과정에서 1994년 2월 학사취위 취득 예정자 또는 기 취득자 3. 영어 필 또는 면제자 4. 해외여행에 걸리지 않은 자 5. 환경관리기사 및 산업 안전관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유예
연구	화학·화학공학·고분자공학·공업화학·기계공학·정밀기계공학·기계설계학·전기공학·전자공학·계측공학·모토공학·건축공학·환경공학		
전산	전산계산학·통계학·수학		

2. 전형방법 및 일정

- 가. 1차: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는 개별 통보함)
- 나. 2차: 필기시험 (1차 합격자에 한함)
 - 일시: 1993년 11월 7일 (일) 09:00
 - 장소: 현대고등학교 (강남구 위례정동 소재, 지하철 3호선 위례역역차)
 - 과목: 영어, 전공, 상식, 적성
- 다. 3차: 면접 및 신체검사

3. 제출서류

- 가. 입사지원서 (당사소정양식) 1통
- 나.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대학원 출신자는 대학원 성적증명서 포함) 1통
- 다. 자격·면허증 사본 (소지자에 한함) 각 1통
- 라. 국가보훈처 취업 보호대상자 증명서 (보훈대상자에 한함) 1통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간: 1993년 10월 12일 (화) ~ 10월 21일 (목) 09:00~17:00 (단, 토요일은 12:00까지, 일요일은 제외)

나. 교부처

지역	교 부 처	전 화 번 호
서울	금강·고려인력관리위원회: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7-8	543-1141, 543-2101
부산	부산영입소: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269-1	512-3211~16
대구	대구영입소: 대구시 중구 태평로 3가 214-25	252-4321, 0227
울산	울산 공 장: 경남 울산시 중구 영포동 777	80-1177
전주	전주영입소: 전북 전주시 서노들동 660-52	74-3007, 78-1877
광주	광주영입소: 광주시 북구 신안동 4-1	523-1505, 522-5013
청주	청주영입소: 충북 청주시 수동 447-1	52-2021~3
대전	대전영입소: 충남 대전시 동구 인동 17-1	284-4934, 283-6927
원주	원주영입소: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96-2	44-6821, 43-5868

다. 접수처

다. 접수처: 금강·고려인력관리위원회
수원면: 137-703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27-8
금강·고려화학 B/D (지하철 3호선 신사역 하차, 한미·국민은행 출구에서 남향 55M)
전화: 543-1141 (교관 230), 543-2101 (교관 349, 321)

5. 기타

- 가. 우원접수는 등기우편으로 마감일 오후 5시한 도착분에 한함
- 나. 국가보훈 대상자는 관제법에 의거 우대함
- 다. 현역복무중인자는 '93년 12월말 이전 전역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바람

러시아는 어디로 가는가

시장경제 '명약' 될수없다

지난 10월4일, 시장경제의 마술을 전파하는 엘친의 이른바 개혁세력파가 이리나하에게 그의 지지를 받아 최고회의 의장직에 올랐던 하스볼라프 및 부통령 루츠코이의 수구세력 간에 벌어진 쟁쟁이런 권력투쟁은, 구소련 지배계급의 최고 보루였던 군부의 로켓포가 승패를 가늠하면서 보이듯이, 러시아 노동계급의 이익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일어나고 마감되었다. 의사당에 모여든 스탈린주의자들과 신인종주의자들을 가라앉혀 엘친은 '잃어버린 특권을 되찾으려는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불렸지만, 9년 8월 친스탈린주의의 강경 보수파 루테타에 저항했던 모스크바 시민들은 이미 소리를 높여 구정권을 되찾고 있었다.



엘친의 승리는 러시아 지배계급간의 권력투쟁의 승리일 뿐이며 노동계급의 스탈린주의에 대한 열중의 반작용일 뿐이다.

러시아는 어디로 가는가. 정치적 관례를 사회경제적 토대의 반영으로 보는데 합의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엘친의 이른바 개혁세력파 루츠코이의 보수세력도 아닌 침묵을 지키고 있는 절대 다수의 러시아 노동계급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장래에 대한 다수파의 논의는 노동대중을 잊어버린 채, 스탈린주의의 잔당 대 시장경제 세력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 여전히 갇혀 있다. 스탈린주의의 불모의 탐수주의로 '현존사회주의'의 붕괴를 탐수주의의 정치경제학의 한계로 제한하는, 그리하여 시장경제를 명약으로 처방하는 오류가 유행되고 있는 것이다. 스탈린주의의 체제를 사회주의로 볼 수 있는가. 시장경제는 '현존사회주의'에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대답은 모두 그렇치 않다.

엘친승리... 권력투쟁 승리일 뿐

노동계급 혁명 조직건설 예상대

만, 1928년 이래 새로운 지배계급으로 등장한 관료들이 경제 전반에 대한 통제권을 점수하여 노동계급을 국유화한 생산수단에 종속시키고 계획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소외시켰던 스탈린주의의 체제는 사회주의가 아닌 오히려 그 대립물이 되는 점이 드러난다. 시장경제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스탈린주의의 체제가 관료적 국가본주의였다는 것과 관련된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부터 이미 세계 자본주의의 경쟁적 축적 구조에

국영기업체의 빠른 해체와 재편성을 기해 시장 경쟁력을 제고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몇가지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첫째, 선진 자본주의에서조차 시장의 논리에서 본다면 상당 사자야 할 자국 기업들의 파산을 막기 위해 국가보조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점이다. 선진자본주의의 조차 국제적인 경쟁적 축적에서 이기기 위해 시장의 원리를 거부하고 있는 마당에 엘친은 파산 직전의 러시아에서 시장경제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둘째, 엄청난 높은 수준의 축적 외에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대안이 없다면, 엘친의 남은 해법은 노동계급의 생활수준 억제와 조직건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 뿐이라는 점이다.

구소련에서 붕괴된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노동계급의 착취를 막고 선 스탈린주의의 체제일 뿐이다. 또한 세계적인 경쟁적 축적 구조에서 시장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것은 새로운 권력관계를 위한 기만이거나 파멸적 오류에 지나지 않는다. 엘친의 승리는 러시아 지배계급간의 권력투쟁의 승리일 뿐이며 러시아 노동계급의 스탈린주의의 체제에 대한 열중의 반작용일 뿐이다. 시대유형적인 시장경제정책이 마술을 부리지 못하는 한, 엘친은 관료 지배계급들 간의 권력투쟁이 종결됨과 동시에 노동계급에 대한 고평배를 당할 것이다. 러시아 노동계급은 스탈린주의의 관료적 명령경제도 엘친의 시장경제도 아닌 아래로부터 통제되는 사회주의 혁명을 찾아 나서려야 한다. 그러나 그 수혜여부는 관료들의 특권에 저항하고 국제적인 경쟁적 축적의 논리를 거부하는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을 위한 진정한 독자적 조직을 건설해 내는 데 달려 있다.

한석원 (본고 정의와 감사)

10월항쟁 재조명 조선민족의 정당한 투쟁

해방정국의 가파른 상황이 전개되던 지난 40년 이제는 잊혀져가는, 그러나 한국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절곡의 역사가 있다. 당시 신탁통치 1년에 접어들던 미군정에서는 '소요'로 우익에서는 '폭동'으로 불리웠던 10월 민족항쟁.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단종이 일어났던 이 항쟁은 삼시간에 경복궁대로 확산되며,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낳았다. 미군정은 그간의 점령정책에서 보다 획일적인 정책으로 노선을 선회했으며 남북의 각 정치세력간 학관계의 변화를 초래해 해방정국의 일대진기를 마련한 계기가 됐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진압을 피해 산으로 달아나 협정참여자들은 후일 남로당과 결합해 해방된 조국의 행복을 앞세운다 다시 고난에 찬 빨치산의 길을 걷게 된다.



대구역 근처에 있던 전평 경북도청회 건물. 이 건물 앞길에서 시위대가 경찰의 총격을 받아 '10월 인민항쟁'이 촉발됐다.

항쟁의 배경

'대구폭동', '우수봉기' 등으로만 알려진 10월항쟁은 그동안 우리사회의 이념론적 정서적으로 역사적·구조적차원의 정상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었다. 그러나 10월항쟁은 미군신탁통치 아래 조국통일과 계몽정당 부정부위 미시대의 미시수정형 하급수정형 등 무리한 강요들로 해방을 맞이한 민족의 기대와는 상반된 미군정 및 남한정부에 대한 불만이 해방직후 세워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이하 전평)의 조직적 노동운동과 파란 노조자 능인을 위한 각계층의 요구로 폭발한 사건이었다.

당시 대구지역 철도노동자들의 파업기간중 뿌려진 전담에는 기차도 엘친의 시장경제도 아닌 아래로부터 통제되는 사회주의 혁명을 찾아 나서려야 한다. 그러나 그 수혜여부는 관료들의 특권에 저항하고 국제적인 경쟁적 축적의 논리를 거부하는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을 위한 진정한 독자적 조직을 건설해 내는 데 달려 있다.

항쟁의 진행

'그때 노동사무원앞에 모인 사람들은 생수 없을 정도였지. 그러다 날이 샅부러 경찰발포로 조합원 한 명이 죽었고...' 당시 전평 대구시 간사를 맡던 이일재(70)노인은 10월1일 항쟁의 첫발을 기억하며, 첫회생자의 소속이 화약노조 대법원관 노조원 황만룡이라고 증언한다. 총파업 대구시위원회 간관을 전평사무원에게 걸며 생긴 경찰과의 마찰이 시발이었던 항쟁은 다음날인 2일 7천여명이 집결한 대구역집회와 경찰서 점수로 경찰을 수 없는 전인민항쟁으로 발전한다.

△경찰 발포중지 수장해제 △국사상향식방을 요구하며 대구경찰서를 포위한 군중들은 그러나 미군의 명령을 받은 무장경찰과 전차들을 투입한 진압으로 17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를 입은채 결국 오후 5시 계엄령 선포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이과정에서 군중들은 '쌀, 쌀을 달라고 외치며 거리를 행진, 부정을 점수하고 노동자들은 조직적으로 △인민당 △신민당 △신민당의 근근 해결을 요구했다. 또한 경찰·의료·행정관료 다수가 미군정의 협조를 거부하며 시위에 참가하고 조직적 치안유지대를 구성함으로써 10월항쟁의 전인민적 성격에 명확히 보여줬다. 항쟁의 파급은 경북

항쟁의 의미

약 3개월간의 항쟁은 전국적으로 1천5백여명의 사상자 4만여명의 체포·연행·부상자를 남긴채 미군정의 기혹한 탄압으로 진압됐다. 10월민중항쟁은 첫째, 구체적인 주장과 행동을 보인점 둘째, 짧은 시간내 남한전체를 항쟁파급에 들게 한 점 셋째, 이후 남한민중들에게 짜임새있는 대중투쟁의 기회가 됐다는 점에서 전민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폭동내지는 자연발생만을 부각시킨 10월항쟁의 고갈의 인식들은 이제 해방정국의 상향식 하지 민중들의 자각과 구체적인 전망에서 일어난 것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항쟁의 후 남한 민족정당연합회의에 상징된 하지 미군정적일지언정 보내는 의견서의 결론은 10월민중항쟁의 올바른 역사적 자리매김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동학당부기도, 3·1운동도 그렇시 집권자들은 선봉에 의한 폭동이라고 장안된 탄압을 하였으나 그것은 조선민족 생명의 정당한 투쟁과정이었습니다. (이재환 기자)

컴퓨터 이야기

컴퓨터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컴퓨터 바이러스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 보았을 것이다. 방송에서조차 한참 떠돌던 미켈란젤로 바이러스 수구 학교내에서 한동안 떠돌며 컴퓨터 사용자들을 괴롭혔던 DIR-2 Dark Avenger 바이러스 등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대체 컴퓨터 바이러스가 뭐길래 컴퓨터 사용자들을 수시로 긴장하게 만들까? 컴퓨터 바이러스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플로피 디스크나 특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른 시스템에 감염된다(복제된다)는 말이 더 어울릴 것이다. 이 컴퓨터 바이러스의 종류는 크게 세가지로 분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과 치료

출처 미확인 화일사용 '금물'

류할 수 있다. 벌레(Worm) 프로그램, 컴퓨터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벌레 프로그램은 시스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자기의 존재만을 확인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정한 시기에 화면이나 프린터에 자신의 메시지를 출력시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쿼키 바이러스, 팻웨어 바이러스, 악 바이러스, 크리스마스 바이러스, 바운싱 볼 바이러스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벌레 프로그램과는 달리 시스템에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이 유형의 바이러스들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시스템에 침투하며, 일정한 잠복기를 가진 후 시스템에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은 고대 그

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 SCAN, CLEAN, CPAV, NAV, VACCINE, VIREX 등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손쉽게 구할수 있고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은 아마 VACCINE이 아닐까 한다. 그렇다고 해서 백신 프로그램이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은 아니다. 백신 프로그램에 대처하지 못하는 바이러스도 있기 때문에 백신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무리 좋은 약을 쓰더라도 한 번에 걸리면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마련이다. 좋은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는 자신의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것이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한다. 차영호 (이과대 통계학과)

동약로 의장의 어머니

지난 9월 25, 26일 마산 경남대에 서는 한총련 주위로 "지역분할 정책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영호남 한마당이 열렸다. 전야제 행사가 초대되어 단상에 앉은 내인 중에는 검은 가드간을 걸친 위소준 이주머니 한분이 계셨다. 전야제가 끝나 갈 즈음 사회자는 그 분을 백만 청년학도의 어머니에 비유하면서 제1기 한총련 의장 김재승군의 어머니라 소개했다. 잠시후 삼엄한 감시를 피해 받게 행사장에 도착한 의장이 무대 뒤에서 시수대의 호위를 받으며 단상에 오르자 학생들은 일제히 일어 나 한총련 진군가를 불렀다. 무대 아래에서 함성 연설을 하고

있는 지식을 바라보던 어머니의 눈에는 순간 이슬이 맺히고 있었다. 다섯달 만에 수배생활 중인 아들 단이 공개되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시국관련 수배자의 수배 해제를 촉구하는 조력을 결성하여 활동에 나선 바 있고, 한총련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 2백만 서명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수배된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은 문민정부는 언제쯤 가족의 품으로 보내줄 수 있을까? 영호남 한마당 본대회가 열린 26일 아침 김재승의장은 차마 돌아 서지 못하는 어머니의 두손에 "국가보안법 철폐"라는 글씨가 선명히 새겨진 스카프를 씌어 드리고는 돌아서서 집회장소로 걸어들었다. 그렇게 당당하고 탄탄하게 만 보이던 의장의 두 어깨는 그날 따라 심하게 떨고 있었다. (전원철 기자)

Advertisement for Shinsei World (신세계) featuring a diagram of a globe with various labels like 'Developer', 'Hotel', 'Total Design', 'Shanghai Credit Card', 'Department Store', 'WORLD-CLASS DISTRIBUTION SERVICE GROUP', 'HUMANITY', 'Secrecy Stone', 'HARD', 'SOFT'. Text includes '전통과 미래가 조화되는곳 - 신세계' and '앞서가는 사람에게는 남다른 선택이 있습니다.' It lists 5 conditions for membership: 1. 모집부문 및 인원, 2. 응시자격, 3. 전형방법,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 5. 기타.

◇학원자주화 투쟁의 평가와 전망

5년 침체 딛고 학자투 부활

올해 학내를 뜨겁게 달구었던 학원자주화투쟁의 성과에 대한 심부름 평가나 진단은 아직 시기상조의 감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구성원이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학생회에 던지고 있는 때인만큼 지난 투쟁을 조망해보는 것은 동국의 제자리 찾기나 이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인식하는 계기로서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올해 학원자주화 투쟁을 개괄, 진단하고 동국발전의 대외에 비추는 투쟁의 평가와 향후 과제들을 분석·전망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학자투 점검
제25대 총학생회가 출범 당시 주장하고 나선 '민중동국자주중흥운동'은 올해 학원자주화투쟁을 학교발전의 교두보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였다고 보여진다.

매년 초 열병처럼 치러지던 등록금투쟁방식에서 벗어나 학교측과 등록금 인하요의 논쟁이 아닌 동국발전의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에 고지서 합의발부를 진행했다. 이에 투쟁의 보편성을 제기하며 발표한 이들도 많았으나 대체로 교수·직원들의 반응은 의외로 좋았다.

이후 학교발전의 기폭제로 삼자는 총학생회의 제안에 따라 학교측과의 협의하에 동국총학생회장준비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규모의 축소를 들어나는 학교 측에 학생회측은 '당국은 학교발전의 기폭제보다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급기야 지난 5월3일 분관장기능성을 시작했다.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총학생회는 학교발전의 파행적인사, 행정적 결을 주장하고 몇몇 특정 교수들의 인사이동과 퇴직을 요구하게 된다. 이어 열린 총학생회에서도 별



◇올해 학자투는 재단혁신의 구체적 대안에 접근했다는 점과 이후 투쟁의 교두보가 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다른 의견집근을 보지 못하자 학생들은 총장퇴진을 요구 하고 학교발전의 재정문제 해결과 올바른 재단의 역할을 촉구하며 전면적 재단혁신투쟁을 시작했다.

이과정에서 지난 6월8일의 2천5백여명이 모인 학생총회가 열리고 재단의 파행적 행적과 비리재단관제자들에게 대한 비리들이 폭로되면서 재단혁신투쟁은 점차 증폭되어 갔다. 학생회와 함께 교수회, 석학회 등도 재단비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대책위를 꾸리는 등 학내구성원들의 재단혁신의 목소리는 높아져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단측은 이사장 남화봉을 통해 자정의지를 피력하는 듯 했으나 여전히 진상규명이나 무능이사장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자 총학생회는 강자우 사무처장, 조재호 전산원장등의 파행과 박원성, 최계구이사등의 총장선거와 관련한 등록금수수사실을 공개하면서 재단정상화를 위해 재단이사

진면피진술로건을 내걸고 학생총회에서 투쟁기조로 채택하는 등 투쟁이 장기화된 조짐을 보였다. 이어 집기농성을 품고 청와대 진정서 접수투쟁등 강경집행이 계속되자 학교당국은 좌중수라고 여겨지는 지난 6월11일의 총학생회장등 9명에 대한 제적등 중징계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계속되어 2학기 학내사태의 표류를 예상케 했다.

한편 재단은 7월23일 재단이사회를 통해 학생들이 사퇴를 요구해온 정재철, 최재구, 황진경이사들 사임하고 새이사진을 영입했다.

그러나 여전히 학생들의 재단정상화를 위한 요구였던 비리재단관제자들과 무능이사들의 퇴진은 거론조차 되지않았다.

이후 2학기에도 정계철회와 이들 비리인사척결을 외치며 학생회간부들의 단식농성과 집회들이 연이어 개최되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학교당국은 제각을 무기력화

으로 한단계 하향조정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정계를 해제하고 학생회측이 제시한 3차회담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거나 재단측은 여전히 방관해오면서 실질적 합의는 도출되지 어려운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

진단과 평가
지주화된 학문사상의 정취와 학사행정의 민주적확립, 재단혁신을 통한 지난 88년 학원자주투쟁은 지금의 학원자주화투쟁과 그 계를 같이하고 있다.

구교투쟁이라 기억하는 지난 88년의 투쟁은 역사적인 8개항을 뚜렷한 성과물로 남겼지만 5년이 지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성과는 진부한 상태다. 학자투 8개항의 핵심이라 일컬어지는 3차회담의 불비한 각 위원회구조는 해를 거듭할 수록 당시의 취지와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 2백여일간의 학자투가 그 의미를 되새기는데도 단정지를 수 없지만 현실화된 성과를 갖지 못한 투쟁은 원점을 걷고 있었다.

◇학복위 혁신 움직임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에 대한 비리의혹과 조직상의 문제가 거론된 지 한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학우들의 관심이 멀어지지 않고 있을 뿐 어떠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학복위에 관해 위원장 직선제를 포함한 회칙개정과 비리진상여부를 밝힌 공개특별감사부문 두가지 사안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공개특별감사는 지난 17일 열린 학대표자회의에서 감사부문체로 지원한 김도학(경영 2)군등 4명이 추천한 인건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4명에 의해 지난 11일부턴 실시되었다. 이에앞서 김도학군등 경영학과 4명의 학우가 실시한 내부감사 결과에 따르면 학복위 장부기록상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군은 "공정회계조사형준등 세학우가 제시한 의문점 총내외위원회 제출한 감사자료인 손익계산서와 조준의 절외에 대한 담보로 도서관앞에 부속했다던 대차보의 금액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학복위의 장부기록상 차액이었던 것 일련"임을 밝혔다. 그러나 "잘못 기재한 자료에 대해 다시 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것은 잘못된

어른이 일고있는 만큼 대책위와 총운위에서 제시한 개정안에도 어느 정도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감사에 1천만원의 수수료를 학복위에서 지출했다. 학우들의 복지를 위해 쓰여져야 할 적지않은 돈이 매년 감사에 지출될 수 있는 것은 학우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에 대한 제도의 보완도 요구된다.

회칙개정은 앞으로 18일 있을 학생총회를 거쳐 결정될 것이며 학생총회 무산시에는 학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게 된다.

학생총회내내 내외협력위원회 의장인 김경진(사회 4)군은 "총운위는 학복위문제의 파도가 밀려난 자료집을 발견하지 않고 있다"며 "학생총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겠지만 그전에 총회준비를 충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약 총회가 성사되지 않음시 학대표자회의에서 회칙개정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전에 대표들은 충분히 학우들의 의견수렴을 하여 개인 의견을 제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여론이 높다.

한편 12일 배포된 조준등 세학우명의 유인물에 따르면 학교측도

학생총회 통한 회칙개정 공개감사결과 주목돼 공판위협 본격화

이러한 평가에 기준이 되는 합의문등 가지적 성과물은 없었으나 88년 이후 침체된 학자투의 새로운 전기를 의미하는 것은 재단정정상화투쟁 설정을 통해 학자투의 평가는 지금의 판단보다는 이후 여전히 잔존한 재단혁신의 과제 실현속에서 평가내려질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재단혁신의 미완 과제는 잔존하고 있다. 자기개혁과 자정의 요구를 느끼지 못한 재단은 여전히 현 동국이 풀어야 할 과제이다. 올해 학자투가 보여준 준비와 결실의 대안은 현재진행형이 되어야 함을 깨닫지 못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학자투의 결실은 지난 17일의 오류를 점검하고 동국학자투의 고질병인 단기적 투쟁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가슴에 새겨볼 일이다. (박수로 기자)

참여하는 감사기구의 구성과 감사기간의 무기한 연장을 주장하고 있으며 학복위 위원장 직선제 회칙개정을 위한 학생총투표를 제안하고 있다.

대책위측이 "공개특별감사 선정주체를 인정하는 만큼 감사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힌 반면 조준등은 이미 감사기 실시되고 있는 시점에 서 처음 자신이 주장했던 공개특별감사에 관한 뜻을 번복하고 있다. 조준뿐 아니라 모든 학우들은 현 감사주체를 인정하고 감사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지난달 24일 있었던 총장과 총학생회 간부의 단면에서 학복위는 앞으로 공판관리위원회(이하 공판위) 형태로 운영될 것임을 합의했다.

강장승관리처장은 "지금상황에서는 공판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 공판위로 될 시에는 회계처리나 특별적으로 하여 수입금을 복귀사업에만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화관 직영설과 '단체문고'인 대서점문제로 인해 그동안 학복위측과 관리처측의 감정악화로 학생과의 장운세게 대개지 역할을 하게 되어 학복위측과 공판위 추진을 위한 논의를 하게된다. 강씨는 "교수직인 학생들을 구성된 공판위 실무준비위를 다음주까지 꾸리는 편이 학복위 감사후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모두는 감사의 결과에 주목하는 한편 학복위에 대한 대안인것은 일방적 공판위 문제거리를 지켜보며 과연 그동안 얻은 것이 무엇인가를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김소영 기자)

단과대 학장에게 듣는다

⑩ 인문대 장중식 학장

시설개편등 장기계획수립 시급 "고적지발굴등 학술사업 실행할 터" 불교문화대 설립후 학과분리 실시



지난 1978년 개교 이래 94학년도에 15주년이 되는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는 인문대설립을 토대로 발전을 거듭해 지방으로서의 드문 종합대학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또한 94학년도 불교문화대학이 인문대에서 단대로 분리되어 명실상부한 불교문화대학의 위상을 갖춘 본교는 그간 학교발전의 중심역할을 해 온 인문대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에 인문대 장중식(교이사)학장을 만나 현 인문대의 문제점과 학

교발전의 전반적 방안에 대해 들어 본다.

— 인문대 설립취지와 교육의 목표는
= 인문과학은 모든 학문의 정신적인 기초이고 대학의 기틀이며 종합대학의 핵심이다. 그에따라 정신을 연구하는 학문이나 만큼 민족의 근원적인 주체성을 고수하고 창조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올바른 인재양성에 교육의 목표를 두고 있다.

— 현 인문대의 문제점과 대책은
= 실정상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으나, 먼저 공간적으로 인문대(교수연구실, 실습실)이 15년이 넘은 연구적으로 정차됨으로 인해 시설이 낙후되어 보수, 유지에 예산의 낭비가 심하다. 또 인문대건물이 본관의 기능까지 겸해야 하므로 비효율성이 조래된다. 이에따라 시설개편, 분관건립등 장기 계획수립이 시급하다.

— 94학년도 불교문화대학설립의 의의는
= 불교문화화 기치를 내건 것은 우선으로 불교종단대학의 위상

정립과 불교정신에 입각한 건학이념의 구현에 있다. 또 현인문대가 많은 학과수용으로 너무 비대한 상태에 있다.

— 불교문화대학설립과 아울러 사회대(사회복지학과), 예술대(미술학과)등의 단대로에 대한 계획은
= 예술대, 사회대는 규모의 영세함때문에 단대로분리건립이 어려운 편이다. 사실 불교문화대학도 불교학과, 불교아동학과 두과로는 협소한 편이 있다. 개인적이나마 미술학과는 인문보다는 문화적 성격이 강하므로 불교문화대학으로 학과소속변경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 불교문화대학에 발전적으로 불교음악을 다루는 '한국음악과'를 신설한다면 단대로서 손색이 없을 것이다.

— 현 인문대 졸업생의 저조한 취업률에 대한 대책은
= 다소 이상주의적이거나 원론적으로 대학은 개인의 인격완성, 학문도야를 본질로 하며 취업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취업은 모든 인문대가 풀어야 할 당면과제이다.

— 제1캠퍼스 구별되는 제2캠퍼스의 특수한 학과 신설계획은
= 이제 대학이 학과의 세분과 증설의 시기는 지났다고 본다. 학문의 범위보다는 깊이를 추구해 내실을 기함이 중요하다. 하지만 경주캠퍼스는 고대의 중심문화도시였던 지역성발달과 지역발전이 적합한 학과신설도 나쁘지 않다.

— 재입학 학생으로서 실패하고 싶은 마음은
= 학생들의 애교심 고취의 일환으로 교내환경 정화, 수목정비, 도서관 및 체육시설등을 추진중이고 그의 장기적인 학교발전방안에 인문인이 구성체 역할을 하도록 주도하겠다. 또한 지역적으로 고령인 경주캠퍼스의 확대를 위해 고적지발굴등 방안을 수립해 실행에 옮길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당부 하고 싶은 말.
= 고대의 충실도시었던 경우에 서 대학을 다닌다는 자부심과 애교심을 갖게 중요하다. 대학인으로 서 명분을 잊지 말고 학문에 정진하기를 바란다. (황)

여기 조용한 동국사랑의 실천이 있습니다!

학교채널발행안내

- 발행목적: 교육환경개선(도서관, 실험실습기자재구입, 교육시설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
- 발행단위: 5만원권, 10만원권, 50만원권, 100만원권
- 금리: 무이자
- 매표처: 조흥은행, 서울·경주캠퍼스 경리과
- 구좌명: 313-03-001769(조흥은행)
- 학교법인동국학원 이사장 오인갑
- 상환시기: 재학생은 졸업후, 동문·대학원생은 2년후
- 안내처: 기획조정실 기획과(02-260-3019), 기획홍보과(0561-770-2019)

기획조정실장

공 고

'94학년도 교육실습대상자에 대한 교육실습 신청서 및 교육실습동의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다 음

1. 대상 가.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인수자 중 '94학년도 4학년 진급예정자. 나. 교직 및 전공과목 성적이 각각 80점 이상 가능한 자.
2. 접수기간: '93.10.18(월) ~ '93.11.12(금)
3. 배부 및 접수: 사범대학 교학과 및 이부대학 교학과
4. 교육실습기간: '94. 4. 4(월) ~ '94. 4.30(토)
5. 교육실습비: 납부기간 및 금액은 추후 공고. (각 대학 홍보 및 동대신문 게재)
6. 기타: 교육실습신청서 및 실습동의서는 각 대학 교학과에서 '93.10.18(월)부터 배부함.

공 고

금년 교내 경비 업무 중 일부를 용역회사인 (주)한국보안공사에 의뢰하여 건물 및 야간 의뢰경비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교직원 및 학생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 바랍니다.

다 음

1. 용역경비구역 및 시간 가. 주 간: 원흥관(1, 2관): 08:00 ~ 20:00 나. 야 간: 캠퍼스내 전역 야간순찰: 20:00 ~ 08:00
2. 야간폐쇄구역(20:00 ~ 08:00) 원흥관 1층 수위실 및 출입문
3. 경비 근무 개시일: 1993. 10. 5(화) 08:00부터

총 무 처 장

第12回 新羅文化學術會議

主題: 신라 하대의 사회변동

第1部 주제 및 발표자

1. 신라 하대 불교계의 동향 김복순(동국대)
2. 신라 하대의 花郎세력 전기승(부산대)
3. 신라 하대 관영수공업의 변화와 장인 박남수(국사편찬위원회)
4. 신라의 멸망과 경주세력의 동향 김길동(원광대)

第2部 주제에 대한 종합토론

《토론참가자》

김영미(국사편찬위원회) 김수태(총 남 대)
김기섭(부 산 공 업 대) 조인성(경 남 대)

일시: 1993년 10월 15일(금) 10:00 ~ 17:00
장소: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도서관 시청각실

東國大學校 新羅文化研究所

우리에 조상들이 가장 기뻐
추는 춤이 어울림이라 했다.
자신의 기쁨을 몸으로 표현
하여 기쁨을 자기몸으로 세상
에 실현하고자 하는 춤이 바로
여울춤이라 했다.
탈수습을 앞둔 요즘, 기분
이 어떠한 걸문을 많이 받았

가 해놓은 일에 가해지는 질타
는 자신감이라는 돌담을 흔들
어버리는 것과는 돌담메이기도
했다.
기자에게 일을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들은 지금 나의 재
신이다. 취재원과 만나서 절절
매며 얼굴을 붉혔던 기억, 맑은



◇이유리기자

다. 수습기자 임명서명이 나갔
을때 지금이 오기만을 기다리
기도 하고 한편 여울춤이라도
출수 있을것만 같았다.
탈수습 예상보다 무감각하고
여울춤은 커녕 두려움만 앞선

다. 학생생활과 기자생활을 함께
해야하는 대학신문기자. 게다가
여자들은 더욱 견디기 힘들다
는 신문사. 어쩌면 그런 편견을
이기기위해 버티었던 것도 모를
일이다.

“일을 좋은 여인이라는 말을
아는가? 뜻을 품은 여인. 나이
가 그 뜻을 객관적으로 실현하
는 여인이다. 적어도 내가 신
문사에서 겪은 여자선배기자들
에게는 성실한 활약을 펼쳤
고, ‘나도...’라는 당당한 생각이
있었다.

“일을 좋다는 생각과 행동
이 일치하기만 일기장에 결심
을 적듯 쉬운 일은 아니었다.
아는것이 얼마되지않는 수습기
자이지만 신문지대에서 요구하
는건 더없는 프로성, 언제나 내

이제 정기자...내가
추어야할 춤은 자기
를 일으켜 세우려는
몸짓, 환관의 나간
이 춤이다

기사를 다 썼을때의 쾌감, 진회
의를 끝내고 나오면서 나에게
한 반성으로 흘렸던 눈물, 조판
소에서 밤을 새웠던 기억, 낙오
자가 될뻔했을때 잠이온 동기
와 선배...

취재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만나는데 매끄럽지 못하고, 원
고지 7:8배를 채우지못해 며칠
밤을 고민했던 적이있다. 수습
배정기때 만든 신문을 들고있
은 나에게 무한한 분노를 느꼈
던 적이있다.

하지만 내가 느껴야할 것은
단순한 분노만은 아닐것이다. 어
찌든 기자생활 내내 고민해야
할 숙제일지도

이제 정기자 새로운 이름을
갖는것만이 아닌 진정한 변신
을 할때다. 내가 온몸으로 추어
야할 춤은, 몸은 형편없이 나갔
어도, 정신만은 발랄해 필사적
으로 자기를 일으켜 세우려는
몸짓, 환관 신나는 나간이춤
이다.

(문과대 국문과)

“일의 쉽고 어려움에 따라
신념을 바꾸어서는 안된다. 당
장 어렵다 해서 고개를 저으며
돌아보지 않으리라는 것을 어
떻게 알겠는가.”

출입처를 든 후 뻗뻗한 두
다리와 잔뜩 복잡해진 머리를
이끌고 신문사로 향하던중 나
의 두 눈은 이 글씨가 적힌 곳
에 고정되었다.

“허투르한 셋바퀴에서 빠져
나기엔 원하던 나에게 이 글귀
는 나의 신념은 무엇이며 동태

기자 생활은 나에게 직접경험
을 먼저 주었다.
수요일 편집회의로 시작되는
신문사 생활은 곧이취해, 1
차-2차 기사마감, 화요일 신문
조판과 발행으로 종지부를 찍
고 다시 수요일 편집회의로 일
주일을 시작한다. 이렇듯 하루
하루 생활하면서 열 틈을 찾지
못했던 나는 점점 가정과 학과
로부터 멀어지는 나를 느꼈고
신념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리속에서 맴돌았던

다. “이제 정기자 새로운 이름
을 갖는것만이 아닌 진정한 변신
을 할때다. 내가 온몸으로 추어
야할 춤은, 몸은 형편없이 나갔
어도, 정신만은 발랄해 필사적
으로 자기를 일으켜 세우려는
몸짓, 환관 신나는 나간이춤
이다.”

“동대신문”이란 결정
체로 사물의 본질을
바로 볼 수 있는 힘
을, 신념의 힘을 키우
리라

“기사는 머리로 쓰는게 아니
라 말로 쓰는 것이다” 이 말은
6개월남짓 신문사생활을 하며
나의 지표가 되기도 했고 위안
이 되기도 했다. “이것은 기사
나”며 나의 한계를 느끼게하고
좌절케 하는데 결코 인식하지
않았던 선배기자의 말이 취재
라고 남보다 열심히 헤아렸
는 나의 보상이었는지 모른
다. 그러나 그러한 나의 생각이
신문사생활에 빨리 적응케했고
사람이나 취재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하지 않았다 싶
다.

기사를 써도 내이를 써야 제
대로 실리지 못하고 취재시 연
히 앞잡이 보이게도 했던 수
습의 딱지를 떼는데도 후련함
만은 아닌 기분은 정기자로서
의 책임감에서 오는 부담감 때
분일것이다.

(이과대 통계학과)

내가 가야할 곳, 혹은 가는
길은 향락이 아니고 슬픔이 아
니며 내일의 하루하루가 오늘
보다 낫도록 행동하는 것이 인
생이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글귀이
며 내 일기장의 첫번째장을 함
상 채워왔던 말이다.
대학생활이 곧 향락생활로
내 눈앞에 다가왔을때 난 인생
의 의미를 찾기 위한 날개짓을
시작했고 날아든 곳은 ‘동대 신
문사’였다.
항상 바쁜 생활속에 삶의 보
람을 찾고 활기찬 생활을 영유
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감으로 날아든 곳에서 동지들
통고 살아온지 어느덧 6개월
또다른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



◇양수정기자

알아서 깨어 나려 한다.
처음하는 취재에서 출입처
문을 열때의 어색함과 처음 만
난 사람들에게 무얼 어떻게 해
야할지 몰라서 당황하며 머
금었던 쓴웃음, 서론 전취재
로 취재원의 마음을 다치게 하
고 어쩔 수 없이 기사를 펴고
내며 흘린 눈물, 내뿜은 열심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신문
사 앞에 서면 늘 같은 느낌속
에 걸음을 주춤하게 된다. 눈
을 보지 않지만 마치 거대한 막
에 둘러싸여 있는듯한... 그런
느낌이다.

어떤 격양된 감정 속에서도
둔감하며 동시에 어떠한 작은
소리에라도 민감한 곳, 바로 이곳
에서 난 동향의 오늘을 고민하
며 내뿜은 선배들의 그 더운
입김을 느꼈다.

대학이라는 오렌지 폭파음의
오아시스에서 그 갈증이 채 가
시기도 전에 난 또다른 시작을
위해 이곳에 입사원서를 던졌
다.

나에게 얼마만큼의 걸음을
해소할 풍파 성취자의 오만한
투지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힘
들면 되돌아갈 오아시스가 있
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이상을

고민해서 쓴 기사인데 고민을
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빨강색인크로 물들여진 원고지
를 되돌려 받으면서 느낀 허무
함 이런 기억들은 어쩌면 내게
실명감을 던져준 일들이지만
이것에서 난 어제보다 나은 오
늘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어느새 무심히 지나치던 대

하는 수많은 인식들중에 하나
가 되길 바라고 동대신문이 하
루에도 수습이 느끼는 기쁨들
중 하나이길 바라며 우리의 고
민과 노력들이 학우들에게 아
주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길 바
란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들이
그리 주체받은 것만은 아니리
라 생각한다.

지금과 부패가 끊임없이 쏠
리는 세상과 권력과 돈에 밀
려버린 약자의 아픔을 편대 하
나로 바꾸어 보겠다는 나의 생
각은 어설플 뉘그러했을까?
신문사의 알 수 없는 매력에
이끌려 문을 두드린지 6개월,
희뿌연 담배연기와 어지럽게
날려진 신문과 원고지가 웬지
살개만은 느껴지지 않는 곳이
었다.

그리고 지금의 한결음이 훗
날의 기쁨을 위한 희생이 아닌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
이 될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
음이다.

“지금의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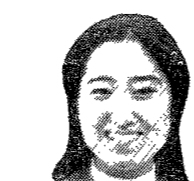


◇허동현기자

찾아 첫발을 내딛었던 그 순간
이미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두
려움이 그늘진 곳에서부터 스
며들기 시작했다.
탈수습이란 언뜻 생각하기
처럼 겁질을 벗고 다시 태어나
는 희열의 순간만은 아닐것이다.
오랜 잠에서 깨어나는 나비의
화려한 기지개가 꿀을 찾아 헤
매일 힘겨운 밤날을 예고하듯
이 이제 그 이들에 걸맞는 날
개짓을 하여야만 한다. 충실한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김소연기자

처음으로 암실에서 혼자 사
진현상을 하다가 필름2정을 태
운 적이 있다. 전날 힘들게 종
로에서 ‘네동행렬’을 찍었던 필
름이었는데 선배는 나에게 책
임을 묻지 않았다. ‘수습이기에
취하는 서러움만큼 실수 또한 어
느정도 인정되었는데 이제부터
그러한 실수는 나만의 책임추
궁에 그치는 문제가 아닌 신문
사에 대한 학우들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갓 태어난 새는 푸
른 창공에 매료되어
무한히 날려한다. 서
툰 날개짓이 능숙해
질 때까지 ...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
젠 취재후의 쓴 웃음이 아닌
좀더 나아지기 위한 공부함을
그리고 생전 처음 들어본 역사
속의 인물들을 알기위해 며칠을
도서관에 틀어박혀 연구하고
기사를 쓰기위해 하루밤을 꼬
박수우며 고민을 아끼지 않았
다.

선배들의 삶으로만 보이면
열정이 이제 내 가슴속 어딘가
에서부터 살아 숨쉬는 것을 느
킨다.
알아서 갓 깨어난 새는 지
높고 푸른 창공에 매료되어 자
기들을 아끼지 않고 무한히 날
려고 시도한다.
서론 날개짓이 능숙해질때까
지..... (이과대 통계학과)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아무리 뒤쳐져도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면 의식은 더욱
뜨렷해져 온다. 아침을 기다리
자. 유난히 긴 밤이 이어지고
어느 사이엔가 창밖이 밝아올
을 느끼며 허탈한 한숨을 내린
다.
그렇다. 나에게 ‘수습기간’은

안의 벽부터 무너뜨려야 했다.
게다가 기자라는 위치는 내게
꼭 넓은 지식과 지치지 않는
부지런함과 앞서는 의욕과 끈
질긴 근성을 요구하지 않았던
가?
신문사 밖의 상황 또한 ‘수습
기자’에게는 언제나 냉정했다.

앞으로 걸어야할
길이 평탄하진 않겠
지만 내겐 알아야할
의무가 아닌 권리가
있고...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음이 훗날 스스로의 완성을 위한 믿거름이 될 것이라는 나의 작은 믿음이다.

한결

학생자치기구 선거 본격 돌입

총대 태경만·박대용-한장섭·이재용 조동 2개조 입후보

93학년도 서울캠퍼스 학생자치기구선거가 지난 8월 총대의 원외 후보등록이 마감되고 14일 각 당파 후보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시작됐다.

△총대의원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정주영·야간부역4 이하 선관위)는 지난 8월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어제(12일) 후보자공고와 함으로써 본격적인 선거에 들어갔다.

제26대 총대의원회 정·부의

장 선거에는 기호 1번에 "민음의 노래로 동악을 깨어나게 하라. 건학대의 건설의 희망세 총대의원이어"라는 구호로 태경만(철4)·박대용(철3)조가 대의원 44명의 추천으로 입후보했으며 기호 2번에 한장섭(특문3)·이재용(정외4)조가 "정의하에 더욱 당당하다"라는 구호로 대의원 26명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했다.

선거운동은 공보가 부착된 어제(12일)부터 대의원 총회가

있는 오는 20일 까지이며 20, 21일 양일간 투표를 치른다.

선전물은 후문쪽과 동관 앞의 각후보의 플래카드(가로 1m, 세로 10m)를 걸며 대의원 앞 게시판에 양후보의 정책내용을 대자보를 통해 게시하며 정책자료집을 포함한 2종류이상의 유인물을 각각 1천부 이내로 제작할 수 있다.

한편 예년선거에서 볼 수 없었던 양후보와 선관위의의 공청선거와 정책 주요내용을 담은 유인물이 제작 배포된다.

또한 선거예산을 공개하기로 양후보간에 합의했다.

△불교대 선관위(위원장=윤영민·인철3)는 오는 14일 등록을 마감하고, 1차유세는 21일, 2차유세는 28일 치루며 27, 28 양일간 투표를 실시한다.

△문과대 선관위(위원장=김성호·건국4)는 오는 14일까지 등록을 마감하고, 1차유세는 21일, 2차유세는 28일 치루며 27, 28 양일간 투표를 실시한다.

△사과대 선관위(위원장=김성호·건국4)는 오는 14일까지 등록을 마감하고, 1차유세는 21일, 2차유세는 28일 치루며 27, 28 양일간 투표를 실시한다.

△이과대 선관위(위원장=김성호·건국4)는 오는 14일까지 등록을 마감하고, 1차유세는 21일, 2차유세는 28일 치루며 27, 28 양일간 투표를 실시한다.

△예술대 선관위(위원장=유태선·미술4)는 오는 22일 1차유세, 25일 2차유세를 치루며 26, 27 양일간 투표를 실시한다.

△야간강좌 선관위(위원장=김선식·야간경4)는 오는 14일에 등록을 마감하며 1차 유세 20일, 2차유세 25일 치루며 26, 27일에 투표를 실시한다.

△동아리연합회 선관위(위원장=양원석·회계4)는 15일까지 후보자 등록 기간으로 정하고 21일 일장공고, 28일 유세를 거쳐 29일 투표에 들어간다.

한편 분과당 선거 일정은 29일 일장공고와 함께 시작해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등록 및 배부, 9일부터 선거운동, 12일 유세 및 투표등의 순이다.

3/4분기 감사 실시

문제 발생시 학생회비 동결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3/4분기 감사에 오는 16일 총무부 연석회의를 통해 진행된다.

현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고 있는 학생복지위원회를 제외한 전체 학생자치기구를 대상으로한 3/4분기 감사는 7월부터 9월까지의 사업과 축적 등에 대한 서류감사만 이뤄진다.

이번 감사에 대해 이승환(산공3) 총대의원회 사무국장은 "3/4분기 감사가 예년에 치러지지 않던 2학기 사업내용이 차기 학생회비 수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면 감사를 통한 시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6일 총무부 연석회의 때 까지 사업계획서, 예산안, 산사, 평가서, 축적자료집 등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학생자치기구는 경고와 동시에 실지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문제가 발생하면 단위에 한해 이후 학생회비 징수를 정지하고 이 예산을 차기학생회비로 이

용할 예정이다.

또한 총대의원회(의장=정주영·야간부역4)는 93년 분산감사를 학생자치기구의 선거가 끝나는 11월 차기학생회와 울 학생회, 감사주체가 겸직할 가운데 이원감사형식으로 진행시킬 예정이다.

△공과대 선관위(위원장=김성호·건국4)는 오는 14일까지 등록을 마감하고, 1차유세는 21일, 2차유세는 28일 치루며 27, 28 양일간 투표를 실시한다.

△문과대 선관위(위원장=김성호·건국4)는 오는 14일까지 등록을 마감하고, 1차유세는 21일, 2차유세는 28일 치루며 27, 28 양일간 투표를 실시한다.

△사과대 선관위(위원장=김성호·건국4)는 오는 14일까지 등록을 마감하고, 1차유세는 21일, 2차유세는 28일 치루며 27, 28 양일간 투표를 실시한다.

△이과대 선관위(위원장=김성호·건국4)는 오는 14일까지 등록을 마감하고, 1차유세는 21일, 2차유세는 28일 치루며 27, 28 양일간 투표를 실시한다.

△예술대 선관위(위원장=유태선·미술4)는 오는 22일 1차유세, 25일 2차유세를 치루며 26, 27 양일간 투표를 실시한다.

△야간강좌 선관위(위원장=김선식·야간경4)는 오는 14일에 등록을 마감하며 1차 유세 20일, 2차유세 25일 치루며 26, 27일에 투표를 실시한다.

△동아리연합회 선관위(위원장=양원석·회계4)는 15일까지 후보자 등록 기간으로 정하고 21일 일장공고, 28일 유세를 거쳐 29일 투표에 들어간다.

한편 분과당 선거 일정은 29일 일장공고와 함께 시작해 내달 1일부터 6일까지 등록 및 배부, 9일부터 선거운동, 12일 유세 및 투표등의 순이다.

전대기련 방북취재 추진 정부 허가여부에 관심 집중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의장=박재철·외대북) 편집장 이하 전대기련은 지난달 24일 한양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달 중순에 취재를 위한 방북을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이날 오후 통일원에 방북신청을 접수시켰다.

전대기련은 방북취재가 이뤄질 경우 5일간 북한에 머무르며 △북한의 민주명절 △북한 대학의 전반적인 의식주와 생활문화현황 △북한의 대학과

교육 등에 대해 취재하며 북한 대학언론기자와의 만남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함께 전대기련은 지난달 27일까지 공동기자단 지명서를 받아 10여명의 공동기자단을 선별하고 지난 5·6일과 9·10일 두차례에 걸쳐 방북취재의 내용과 인식공유를 위한 합숙을 가졌다.

한편 전대기련의 방북취재 추진은 지난 91년 이후 2번째로 현재 북한의 핵문제로 남북

교류가 경색되어 있는 가운데 정부기간의 남북한 실무접촉이 진행되고 있어 정부당국의 허가여부에 각주가 주목된다.

직원노조
풍기인삼 판매
 직원노조(위원장=장운·학생)는 풍기인삼 5톤을 지난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주문 판매한다.

△공과대 선관위(위원장=김성호·건국4)는 오는 14일까지 등록을 마감하고, 1차유세는 21일, 2차유세는 28일 치루며 27, 28 양일간 투표를 실시한다.

△문과대 선관위(위원장=김성호·건국4)는 오는 14일까지 등록을 마감하고, 1차유세는 21일, 2차유세는 28일 치루며 27, 28 양일간 투표를 실시한다.

△사과대 선관위(위원장=김성호·건국4)는 오는 14일까지 등록을 마감하고, 1차유세는 21일, 2차유세는 28일 치루며 27, 28 양일간 투표를 실시한다.

△이과대 선관위(위원장=김성호·건국4)는 오는 14일까지 등록을 마감하고, 1차유세는 21일, 2차유세는 28일 치루며 27, 28 양일간 투표를 실시한다.

총동창회를 진단한다

전 동문의 학교발전의지 모아내야

총동창회(회장=황명수·정치53졸)의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돼 출범한지 3개월여가 지났다.

그동안 총동창회의 학교발전의지에 많은 문제제기와 함께 총동창회 임의회 남부 거부등으로 재학생과 동문사이의 많은 거리감이 있어왔다.

새 임원진 출범이후 총동창회는 동국발전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일정정도 학교발전의지를 표명해 왔으며 미니버스, 엠프 기증등 실질적인 지원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역시 전체 동문이 학교발전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이 중요한데 총동창회 임원 구성조차 되지 않아 이사회의 활발한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또 한가지 예로 동창회 장학카드의 경우 후배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라는 의의에 동

행정대학원 특강

행정대학원 특강

행정대학원(원장=유광진·정치외교학)은 오는 14일 오후8시 동국관(L10)에서 구엔 프민 주한 베트남대사를 초청해 '한-베트남 관계 증진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실시한다.

도서관 모범상 시상
 제5회 도서관 모범상 시상 및 모범봉사상 시상식이 지난 6일 총장실에서 있었다.

해설

취업전산망 개통

취업과(과장=문기곤)는 우편, 전화, FAX 이용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취업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취업정보 전산망을 개통했다.

취업과는 지난 5월13일 음성정보통신(GNS)과 취업정보 제공을 계약하여, 전송된 정보를 취업과 담당자가 선별하고 내용을 복사하여 취업정보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을 택했다.

한편 전자계산소에서는 음성정보통신과의 계약과 동시에 내보 정보시스템에 알맞는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하여 지난 9월말 2D(다중접속) 방식의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따라서 전산용 정보를 복사하여 공고하면 종전의 방식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보제공

활용 활성화 방안 모색요구

활용 활성화 방안 모색요구

등 졸업예정자 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이 알아두어야 할 부분도 마련돼 있다.

취업정보 전산망은 졸업예정자와 재학생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중앙도서관, 학생회관, 취업자료실 등에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취업과의 이우용 과장은 "중앙도서관에 12대를 우선 설치하여 이용률이 높아지면 더 설치하겠다"며 "학생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취업정보 전산망의 선례로는 현역대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최근부터 개편된 전산망이 현재는 학내 모든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있어 학생들의 이용률이 67%가 넘는다고 한다.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정대용·야간강좌4)에서 실시한 바 있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취업

신중론(?)공사

○...학생회관 1층 남사후 장실이 오랜 기간 공사후 문을 열자마자 하루뒤 다시 문을 닫아 많은 학생들이 하루 이용한 화장실을 동무로 하고 다시 3중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었다는데, 그 까닭은 오랜기간 동안의 내부공사후 개장을 했지만 조명을 달지않아 다시 문을 닫았기 때문이라고.

이것을 지켜본 한 학생은 "화장실 공사에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지만 조명설치하는 날을 꼭 따로 잡아야 하나"며 일침.

구토증
 ○...요즘 다양한 식당을 찾는 이들이 식사 전후 구토증에 시달린다는 소식.

부실기획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치러진 백상예술제에 개막식부터 난관에 부딪혔었는데, 사전인즉 백상예술제의 개막식과

연기원 공청회

○...본격적인 중간고사 기간이 시작되자 한동반 졸업생 학우들에게도 관심밖인 모양인데,

생물학 동아리 발간

출판부(부장=김용철)는 지난 25일 김주필(농업생물학) 교수가 편찬한 생물학 동아리 발간을 발표했다.

출판부 한 관계자는 이책에 대해 "일반생물학의 숲에 내한 개념을 정립하여 생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밝히고 있다.

한편 저자 김주필 교수는 "일반생물학을 다년간 지도해오면서 생물학 동아리에 대한 개념 부족을 가장 뼈저리게 느꼈다"고 출판 취지를 밝히며 "부족한 점은 계속 강의를 통해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조명공사 날짜 꼭 따로잡아야 하나요

연결플래가 등등에 퍼진것은 아닌가 하고 알아보니 다량관 식당입구옆에 버섯이 자리한 청소차 주차장 때문이라고.

학교지정계사관을 가진 것도 문제지만 식사를 하는 곳에 청소차가 출린 오물과 그 악취가 식당을 이용하는 이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데.

식당입구를 나오는 학우들을 보며 분회전무대자 청소차주차장옆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느라 재하지나 않음에 걱정스럽기만.

국문과 축제 '웃음마을'의 개막식 장소가 겹쳐 혐의됨에 국문과가 양보를 한것이라고.

많은 학우가 참여할 기획도 실패 눈치 띄고 기획자재가 늘어 비현실적이라 불렀다.

이에 한학우, "학우들을


위에 백상예술제라면 더 참신한 기획과 빠른 선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일침.

연기원 공청회
 ○...본격적인 중간고사 기간이 시작되자 한동반 졸업생 학우들에게도 관심밖인 모양인데,

한 이변행사는 예년 행사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으나 이북화와 상영등 문화부일상사업에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학원지주와후생과의 기계적 결합을 무리하게 의식한 부분과 제전을 선전할 수 있는 행

기술의 현대 세계의 현대

세계를 품안에, 미래를 어깨에



기술이 경제를 이끌고 인제가 미래를 엮는다. 최첨단 64MD램, 무공해 자동차, L·NG 신, 자기부상열차등 신기술, 신제품 개발로 세계시장을 누비는 현대 - 21세기 세계의 정상으로 도약할 현대가 폐기에 찬 당신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기술의 현대 세계의 현대

남·여대졸 신입사원모집

1. 모집부문 인원 및 자격

구분	모집부	인원	등	시	자
이공계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건축공학	1,350명	4	30	2301-4
	도목공학, 화학공학, 산업공학, 전산학				
인문 사회계	인문사회계 전체학과	700명	4	30	5111-6
	인문사회계 전체학과				

2. 전형방법
 가 1차 : 필기시험
 ● 필기 : 영어·전공
 ● 인문·사회계 : 영어·전공(경영학·경제학·무역학·법학·행정학·영문학 중 택일)
 나 2차 : 면접 및 신체검사 (1차 합격자에 한함)

3.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1993년 11월 7일(일) 오전 9시
 나. 장소 : ● 서울지역 접수처 : 1)이공계 : 연세대학교(성동구 모전동) 2) 인문·사회계 : 경희대학교(동대문구 회기동)
 ● 울산지역 접수처 : 울산대학교(경남 울산시 부곡동)

4.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양식 소정양식) 2통
 나. 대학전학단 성적증명서(내학원 출신자는 대학원 성적증명서 포함) 1통

5.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간 : 1993년 10월 6일(수) ~ 10월 15일(금) 매일 오전 9시 ~ 오후 5시(공휴일도 접수함)
 나. 교부처

지	역	교	부	전	화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현대인력관리위원회	02) 746-3231-4		
부산	중구 중앙동 1가 80-1	현대인력관리위원회	052) 30-2301-4		
대구	중구 중앙동 1가 80-1	현대인력관리위원회	053) 466-4400-14		
광주	서구 동성동 2가 69-2	현대인력관리위원회	053) 353-4200-11		
대전	서구 동성동 415-12	현대인력관리위원회	062) 364-2111-5		
대구	중구 중앙동 503-2	현대인력관리위원회	042) 824-6301-7		
대전	중구 중앙동 373-1	현대인력관리위원회	052) 86-5111-6		
대전	영동 87-3	현대인력관리위원회	0431) 52-3911-4		
대전	호서 1동 685	현대인력관리위원회	0361) 52-4706-8		
대전	독산동 159	현대인력관리위원회	0391) 43-3390-3		

나. 접수처 : ● 서울 - 현대인력관리위원회(비밀번호 현대소프센터 : 지역별 3.0선 안국역)
 ● 부산 - 현대인력관리위원회

6. 기타
 가. 우편접수는 동시우편으로 마감일까지 도착하여야 함
 나. 우편접수는 수험료 반환을 불부 수험료와 원금으로 가능
 다. 합격 통보후 1주일 이내 93년 12월말 이전 전역에서 한하여 지원 가능함
 라.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함
 마. 신체장애인의 경우 전형과정상 불공정한 대우를 하지 않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에 문의함

1993년 10월

모집처 : 현대인력관리위원회(비밀번호 현대소프센터 : 지역별 3.0선 안국역)
 ● 부산 - 현대인력관리위원회

현대인력관리위원회

